

# 『黃帝內經』의 精, 神과 陰陽變化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韓醫學古典研究所<sup>2</sup> · 慶熙大學校大醫院基礎韓醫科學科<sup>3</sup>  
白裕相<sup>1, 2 \*</sup> · 尹銀卿<sup>1, 2, 3</sup>

## A Study on The Jeong(精), Sin(神) and Eumyang Changes(陰陽變化)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Baik You-sang<sup>1, 2 \*</sup> · Yoon Eunkyung<sup>1, 2, 3</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sup>3</sup>Dept.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Jeong(精) and Sin(神) have very close relation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jeong(精) is base of sin(神). Jeong is the origin of life force, Sin can be manifested through the Yin-yang inter conversion of Jeong, on the other hand, Jeong can be created through the same conversion of Sin. The Yin-yang inter conversion of Jeong or Sin, means the inclination of Taegeuk(太極) to Unification after division, in this process, life force and creative power are made.

**Key Words** : Hwangjenaegyong(黃帝內經), jeong(精), sin(神), Eumyang Changes(陰陽變化)

### I. 序 論

精神은 氣血과 함께 인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미 『黃帝內經』에서부터 역대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1) 인간의 精, 氣, 神, 血 네 요소를 有形과 無形의 질적인 차이로서 구분하여 보면, 精과 神은 氣血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量의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氣도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으나, 역시 물질이 아니므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측량하기가 어려우므로

無形에 가깝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精과 神에 비해서는 그 존재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물질 자체도 氣가 응결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氣는 에너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精神보다는 비교적 측량 가능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精은 일반적으로 水穀의 精微처럼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으나<sup>2)</sup> 실제 우리 몸에서 특정한 장소에 축적되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며, 氣化 작용을 통해서만 精氣의 특성이 드러나고, 또한 神과의 밀접한 관계성 때문에 오히려 無形의 세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명확하게 精의

\* 교신저자 : 백유상.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baikys@khu.ac.kr. Tel : 02-961-0326

접수일(2010년 12월17일), 수정일(2011년 1월11일),

게재확정일(2011년 1월12일)

1)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도가에서도 精氣神을 三寶라 하여 인간 영위의 핵심 요소로서 강조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상은 『東醫寶鑑』의 주요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다.

2) 최근의 연구로서 張登本, 孫理軍, 李翠娟 등은 논문(精氣學說在《黃帝內經》理論建構中的作用及其意義. 中醫學刊. 2006. 24(5). p.786.)에서 精을 인체를 형성하는 원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적인 시각은 精이 물질인 水穀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유물론적인 철학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미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설명이 분분하였던 측면이 있었다.<sup>4)</sup>

인체의 유형적인 요소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비교적 무형적인 요소를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의학적 관점이 시대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金元時代처럼 臟腑論을 바탕으로 先天과 後天의 精을 중시하던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虛實을 파악할 수 있는 氣血論을 바탕으로 하여 인체의 正氣를 파악하거나 또는 邪氣의 轉變을 중심으로 하는 辨證體系가 발달하였던 경우가 있었다.<sup>5)</sup>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각 시대별로 의학의 특성과 방향이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黃帝內經』에 나오는 精과 神 사이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고 그것이 陰陽變化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無形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精과 神 각각의 의미, 그리고 그 상호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精과 神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찰하는 작업은, 邪氣를 몰아내어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의학보다는 고령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즉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長壽를 누리게 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의학을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sup>6)</sup> 왜냐하면 神은 현대 사회에 와서 질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精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3) 張介賓은 『類經·疾病類·宣明五氣』(張介賓·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14.)에서 神을 “精氣之靈明”으로 표현하면서 精氣의 신령스럽고 밝은 상태로서 神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精, 精氣의 無形적인 특성이 神과 관련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4) 현대의학의 내용과 대응해 보면 神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氣는 에너지에, 血은 Bloo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精은 뚜렷한 상응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5) 精氣神을 중시하는 道家醫學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반하여 清代의 溫病學은 衛氣營血辨證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邪氣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6)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氣血의 정체보다는 精氣가 고갈되거나 神이 어지러워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II. 本 論

### 1. 精神의 역할

『黃帝內經』에 나오는 精神의 의미를 살펴보면 현대에서 말하는 精神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으며, 한편 精과 神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內經』에서 精과 神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素問·上古天真論』에서 “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憺虛無, 真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허사적풍을 피하는 때를 지키며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하여 없는 듯이 하면 진기가 따라오고 정신이 안에서 지키게 되니 병이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sup>7)</sup>라고 하여 精과 神 모두 인체의 내부에서 일정한 규율을 지킴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王冰은 “精神內守”에 대한 주석에서 “恬淡虛無, 靜也. 法道清淨, 精氣內持, 故其氣邪不能爲害.(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하는 것은 고요히 하는 것이다. 법도는 맑고 깨끗하면 정기가 안에서 지켜지니 그러므로 그 사기가 능히 해를 끼칠 수 없다.)”<sup>8)</sup>라 하였는데, 精神을 精氣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神은 陽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외부로 나가 활동을 하는데 비하여, 陰의 특성을 가진 精이 주로 안에서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精과 神의 陰陽 속성을 대비하면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高世栻은 『素問直解』에서 “凡四時不正之氣, 皆謂之虛邪賊風, 教其避之有時, 其心則恬憺虛無而本元之真氣從之, 不竭其精, 時御其神, 則精神內守.(무릇 사시의 올바르지 않은 기운을 모두 허사적풍이라 하니, 그것을 피해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치면 그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하여 本元의 眞氣가 따라오니, 그 정을 고갈하지 않고 때에 맞추어 그 신을 부리면 곧 정과 신을 안으로 지킬 수 있다.)”<sup>9)</sup>라고 하여 精은 고갈시키지 말아야 하고 神은 때에 적절하게 잘 부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도 精은 神에 비하여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

8) 金達鎬.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p.12.

9) 金達鎬.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p.13.

陰의 성질이 강하므로 그것을 고갈시키지 말고 잘 보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神은 精에 비하여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갈보다는 오히려 妄動하지 않도록 하면서 시기적절하게 부려야 한다고 보았다.

精神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을 살펴보면,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外不勞形於事, 內无思想之患, 以恬愉爲務, 以自得爲功, 形體不敝, 精神不散, 亦可以百數.(밖으로 일에 대하여 형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안으로 생각으로 인한 근심이 없어서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하는 것을 일삼고 스스로 얻은 것만을 공으로 여기면, 형체가 늙지 않고 정신이 흩어지지 않아서 또한 백세를 살 수 있다.)”<sup>10)</sup>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정신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精이 안으로 쌓여서 보존되고 神도 밖으로 사라지지 않고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도 “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성인께서 정신을 집중하고 천기를 들이면 신명이 통하게 된다.)”<sup>11)</sup>이라 하였는데<sup>12)</sup> 여기서의 정신은 현대에서 말하는 정신작용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가들은 여기서의 ‘傳’이 ‘專’의 의미와 통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sup>13)</sup> 다만 이때의 精神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육체와 대비되는 정신활동[sprit]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누리는데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精神이 흩어지지 않고 안에서 잘 지켜졌을 때 장기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長壽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精神이 흩어지지 않게 잘 모으는 것은 聖人처럼 修養을 많이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신 활동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목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精과 神의 관계

### 1) 精의 축적과 神의 관계

『素問·上古天真論』에서 “有至人者, 淳德全道, 和於陰陽, 調於四時, 去世離俗, 積精全神, 游行天地之間, 視聽八達之外.(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덕을 닦고 삶을 온전히 하여, 음양에 화합하며 사시와 조화를 이루고 세상과 속세를 떠나 정을 쌓고 신은 온전히 하여 천지 사이에 노닐며 다니고 팔달의 밖을 보고 듣는다.)”<sup>14)</sup>라 하였는데, 여기서 精을 쌓아서 神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精이 곧 神의 바탕이 됨을 의미한다. 즉 精을 튼튼히 한 후에 神을 원래 타고난 상태대로 잘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王冰은 이에 대해서 “心遠世紛, 身離俗染, 故能積精而復全神(마음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멀리하고 몸은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니, 그러므로 능히 정을 쌓아서 다시 신을 온전하게 한다.)”라 하였는데 역시 精을 쌓고 나서 이후에 다시 神을 온전하게 한다고 하여 精과 神 사이의 관계를 일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張介賓은 『類經·攝生類·古有真人至人聖人賢人』에서 “去世離俗, 藏形隱迹也, 積精全神, 聚精會神也.<sup>15)</sup>(세속을 멀리하는 것은 형체와 자취를 감추는 것이며, 정을 쌓고 신을 온전히 하는 것은 정을 취합하여 신을 모으는 것이다)”<sup>16)</sup>라고 하여 ‘積精全神’을 聚精會神이라 해석하였는데 王冰과 달리 특별히 精과 神 사이의 인과 관계를 말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高世栻은 『素問直解』에서 “積精全神者, 精積而神全也.(정을 쌓고 신을 온전히 하는 것은 정이 쌓임으로써 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sup>17)</sup>라고 하여 精이 쌓임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

12) 張介賓은 『類經·疾病類·生氣邪氣皆本於陰陽』(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68.)에서 “傳, 受也, 服, 佩也. 惟聖人者, 能得天之精神, 服天之元氣, 所以與天爲一, 而神明加與天通矣.(전은 받는 것이고, 복은 차는 것이다. 오직 성인인 사람이 능히 하늘의 정신을 얻고 하늘의 원기를 간직하니, 하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신명이 더하여 하늘과 더불어 통하는 것이다.)”라 하여 ‘傳’과 ‘服’ 모두 받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때의 정신은 하늘로부터 품부받는 것이라 보았다.

13) 金達鎬.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p.50.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

15) 精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여든다고 보았으며 神은 떠돌다가 만나는 것이므로 會라고 표현하였다.

16)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0.

으로 인하여 이후에 神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陰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精과 神이 서로 互根, 互用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나 우선 순서상 精이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精이 축적되지 못하고 고갈되면 神이 온전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2) 精과 神의 갈무리

精과 神의 병리적 관계에 대하여 『素問·湯液醪醴』에서 “帝曰, 何爲神不使. 岐白曰, 鍼石, 道也. 精神不進, 志意不治, 故病不可愈. 今精壞神去, 營衛不可復收, 何者. 嗜欲無窮, 而憂患不止, 精氣弛壞, 營瀆衛除, 故神去之而病不愈也.(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신을 부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침석은 방법일 뿐입니다. 정신이 나아가지 않고 지의가 다스려지지 못하므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지금에 정이 무너지고 신이 떠나가서 영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욕심이 끝이 없어서 우환이 그치지 않으니 정기가 늘어지고 무너져서 영기가 멎치고 위기가 사라지니, 그러므로 신이 떠나가서 병이 낫지 않습니다.)”<sup>18)</sup>라 하여, 精이 무너지고 나서 神이 우리 몸으로부터 떠나가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거나 걱정이 끊이지 않으면 精氣가 무너지고 營氣와 衛氣가 막히며 흩어지기 때문에 神이 떠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精氣가 무너지거나 神이 떠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조건은 바로 마음의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한번 神이 떠나가면 營氣와 衛氣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서 神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다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神의 陽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데 陰氣가 부족하여 陰氣에 뿌리를 두지 못할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서 흩어져 버린다고 본 것이다. 또한 精이 陰에 속하여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고갈되는 반면에, 神은 모이고 흩어지는 차이가 있을 뿐 量的으로 고갈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는 神이 물질의 量的 세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19)</sup>

張介賓은 『類經·論治類·湯液醪醴病爲本工爲標』에서 “腎藏精, 精爲陰, 心藏神, 神爲陽, 精壞神去, 則陰陽俱敗, 表裏俱傷, 榮衛不可收拾矣.(신이 정을 갈무리하는데 정은 음이고, 심이 신을 갈무리하는데 신은 양이니, 정이 무너지고 신이 떠나가면 음양이 함께 무너지고 표리가 함께 상하여 영위를 거두어들이 수 없다.)”<sup>20)</sup>라 하여 精과 神을 각각 腎과 心에 배속하여 설명하였으며, 인과적으로 精이 무너지고 神이 떠나간 이후에 陰陽表裏가 모두 傷하여 營衛를 수습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精神을 陰陽論으로 해석한 후 이를 營衛와 연결하여 설명한 것이다.

精과 神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素問·經脈別論』에서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모맥이 정을 합하여 부로 기를 보내면, 부의 정과 신명이 사장에 머무르고 기가 권형으로 돌아가게 된다. 권형이 평형을 이루면 기구에서 형성되어 여기서 사생을 결단하게 된다.)”<sup>21)</sup>이라고 하여, 精氣와 神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毛脈에서 精을 습하여 그 精의 氣가 府에 쌓이면 神明이 發現하고,<sup>22)</sup> 이어서 心을 제외한 나머지 四臟에 神을 머물게 하므로, 이것이 바로 魂, 神, 意, 魄, 志의 五神이 五臟에 머무르고 또한 발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精과 神을 陰陽의

19) 金達鎬.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p.298. : 王冰은 “精神者, 生之源, 榮衛者, 氣之主, 氣主不輔, 生源復消, 神不內居, 病何能愈哉.(정신은 생명의 근원이며, 영위는 기의 주인이니, 기의 주인이 도움을 주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또한 사라져서 신이 안에 거처하지 못하니 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 하여 精과 神을 하나로 보고 營衛가 氣主로서 먼저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때 精神이 사라지는 것이라 하였다. 營衛의 不通이 神이 흩어지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20)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244-245.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22) 張介賓은 『類經·藏象類·食飲之氣歸輸藏腑』에서(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61.) “宗氣積於肺, 神明出於心, 氣盛則神王, 故氣府之精爲神明.(종기는 폐에 쌓이고 신명은 심에서 나오므로 기가 성하면 신이 왕성해지니, 그러므로 기부의 정은 곧 신명이다.)”라 하여 氣府에 모인 精이 곧 神明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精과 神의 관계를 陰陽論의으로 나누어 본다면 精이 모인 이후에 神明에 발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 金達鎬.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p.23.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49.

관점에서 보면 精은 靜의이고 凝縮되어 있으므로 陰에 속하고 神은 動的이고 끊임없이 활동하므로 陽에 속한다. 그러므로 활발한 神이 陰에 속하는 精과 습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五臟 속에 머물면서 일정한 질서 하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精이 무너지면 神이 떠나간다고 하였으므로 만약 반대로 精이 모이면 神은 다시 돌아와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五神이 五臟 속에 깃든다는 표현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sup>23)</sup>

『素問·痺論』에서도 “陰氣者，靜則神藏，躁則消亡。(음기가 고요해지면 신이 갈무리되고 조동하면 사라져 없어진다.)”<sup>24)</sup>이라 하여 陰氣가 고요할수록 神이 잘 갈무리되어 안정적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하였다. 王冰은 이에 대하여 “陰謂五神藏也，所以說神藏與消亡者，言人安靜，不涉邪氣，則神氣寧以內藏，人躁動觸冒邪氣，則神被害而離散，藏無所守，故曰消亡。(陰은 다섯 神이 갈무리되는 것이다. 神을 갈무리하고 사라진다고 말한 것은, 사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邪氣가 이르지 않으면 神氣가 편안하게 안으로 갈무리되고, 사람이 躁動하여 邪氣에 감촉되면 神이 손상을 받아 흩어져 버려서 갈무리하여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사라져 없어진다고 한 것이다.)”라 하여, 사람이 邪氣에 대한 감촉한 여부에 따라 神이 머물고 떠나간다고 하여 邪氣가 중간에 매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張介賓은 『類經·疾病類·痺證』에서 이에 대하여 “陰氣者，藏氣也。五臟者，所以藏精神魂魄志意者也。人能安靜則邪不能干，故精神完固而內藏，若躁擾妄動，則精氣耗散，神志消亡。(음기는 장의 기이다. 오장은 정신, 혼백, 지의를 갈무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안정하게 되면 사기가 간섭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정신이 견고하게 안으로 갈무리되며, 만약 날뛰거나 망동하면 정기가 흩어져 없어져서 신지가 사라지게 된다.)”<sup>25)</sup>라 하여 五臟의 陰氣가 안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精神이 함께 안으로 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sup>26)</sup>

23)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p.49-51.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2.

25)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p.376.

『靈樞·根結』에서도 “調陰與陽，精氣乃光，合形與氣，使神內藏。(음과 양을 조화하면 정기가 이내 빛나고 형과 기를 합치하여 신이 안으로 갈무리하도록 한다.)”<sup>27)</sup>라 하여 陰과 陽이 조화를 이룰 때 精氣가 잘 발휘되고 그 精氣가 形體와 氣에 충만하였을 때 神이 안으로 잘 갈무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순서상 精氣가 발양되어 形과 氣가 합일한 이후에 神이 안으로 갈무리됨으로써 精의 축적과 발양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精의 축적과 神의 갈무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바탕은 바로 陰과 陽이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形과 氣과 습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精과 神은 단순히 陰陽運動 변화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精과 神이 축적되고 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생성 기전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精의 의미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점점 순수해지면서 순도가 높아져서 가장 精微해진 상태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精微가 神이 모이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神이 우리의 정신활동 중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고차원적인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精에 붙어서 뿌리를 두고 있어야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精과 神 모두 매우 靜化된 순수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활동하므로 서로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形體를 만들고 힘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血이나 氣보다는 氣血이 더욱 精微해진 精이 있어야 神이 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生命 탄생과 精神의 관계

앞에서 말한 精과 神이 우리 몸 전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靈樞·本神』에서 “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隨神往來者，謂之魂。並精而出入者，謂之魄。(그러므로 태어나면서 오는 것을 정이라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2. : 〈宣明五氣篇〉에서 五臟이 五神을 갈무리하는 것에 대하여 “五臟所藏，心藏神，肺藏魄，肝藏魂，脾藏意，腎藏志，是謂五臟所藏.”라고 설명하고 있다. 張介賓은 『素問·痺論』에서 말하고 있는 五臟의 陰氣에 의하여 五神이 안으로 들어와 머물게 된다고 보았다.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1.

하고 두 정이 서로 맞붙은 것을 신이라 한다. 신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혼이라 하고 정과 함께 출입하는 것을 백이라 한다.”<sup>28)</sup>라 하여 精과 神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生命 자체 또는 生命力이 나오는 것이 精인데, 兩精 즉 陰精과 陽精이 서로 붙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神이라 하였다. 앞에서 精이 神의 바탕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용에 의하여 神이 활동하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즉, 精이 陰精과 陽精으로 나뉘어 서로 붙어서 陰陽變化를 일으키면 그 과정에서 神이 깃들게 된다. 이와 같이 精과 神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精과 神을 따라서 出入往來를 하는 魂과 魄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순서대로 精, 神, 魂, 魄이 잘 갖추어지면 비로소 사람의 모든 精神活動이 완성되고 生命力을 가지게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靈樞·本神』의 기술은 곧 하나의 개체인 인간이 탄생하여 생명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어떠한 순서로 精, 神, 魂, 魄이 작용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靈樞·根結』에서 “調陰與陽, 精氣乃光, 合形與氣, 使神內藏.(음과 양을 조화하면 정기가 이내 빛나고 형과 기를 합치하여 신이 안으로 갈무리하도록 한다.)”<sup>29)</sup>라고 한 것도 精과 神의 先後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本神」의 내용에 대하여 張介賓은 『類經·藏象類·本神』에서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陰陽二氣, 各有其精, 所謂精者, 天之一, 地之六也. 天以一生水, 地以六成之, 而爲五行之最先, 故萬物初生, 其來皆水.(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생하고 고요하여 음을 생하며 음양 두 기가 각각 그 정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정이란 하늘의 일수와 땅의 육수이다. 하늘은 일수로 수를 생하고 땅은 육수로 그것을 이루어 오행 중에 가장 먼저가 되므로, 만물이 처음 생활 때 모두 수로부터 온다.)”<sup>30)</sup>라 하여 陽精과 陰精을 모두 1, 6 수의 精으로 보았다. 水가 만물을 생하는 근원이라는 점에서는 陽精과 陰精을 水의 精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현상 세계에서는

부모의 陰精과 陽精으로 보아야 하며, 陰陽으로 나누어진 두 精이 神에 갈무리되어 있으므로 단지 水의 精이라 표현한 것이다. 張介賓은 또한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精이란 陰과 陽의 精이다. 搏은 사귀고 맺는 것이다. 『周易』에서 하늘의 數가 五이고 땅의 수가 五이어서 五位가 서로 만나 각각 습을 둔다고 하였고, 朱子가 두 五의 精이 신묘하게 합하여 엉긴다라고 주석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兩精相搏을 말하는 것이다. 무릇 만물이 태어나서 이루어지는 道가 陰陽이 사귀고 나서 神明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반드시 음양이 기가 합하고 부모의 정이 서로 얽혀서 두 정이 서로 맞붙어야 形과 神이 이내 만들어지니, 이른바 天地가 氣를 합하는 것을 사람이라 한다는 것이다. 또한 『決氣』에서 두 神이 서로 맞붙어 합하여 형체를 이루는데 항상 몸보다 앞서 생하는 것을 精이라 한다.

兩精者, 陰陽之精也, 搏, 交結也. 易曰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周子曰二五之精, 妙合而凝, 是皆兩精相搏之謂. 凡萬物生成之道, 莫不陰陽交, 而後神明見, 故人之生也, 必合陰陽之氣媾父母之精, 兩精相搏, 形神乃成, 所謂天地合氣, 命之曰人也. 又決氣篇曰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sup>31)</sup>

張介賓은 兩精이 相搏한 후에 神과 形이 이내 만들어져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으로 보았고, 『靈樞·決氣』에 이와 다른 내용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또한 張介賓이 神이 精의 相搏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이유는 2, 7 火에 속하는 神이 水의 다음에 형성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음으로 『靈樞·決氣』의 내용을 살펴보면,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두 신이 서로 맞붙어 합하여 형체를 이루는데 항상 몸보다 앞서 생기는 것을 정이라 한다.)”<sup>32)</sup>이라 하였는데, 두 神이 서로 맞붙어 사귀 이후에 형체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張介賓의 설명에 의하면 兩精이 相搏한 이후에 神과 形이 만들어지므로 「本神」의 내용과 차이가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1.

30)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56.

31)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56.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8.

없어 보인다. 그러나 張介賓은 『類經·藏象類·精氣津液血脈脫則爲病』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神은 陰과 陽이다. 搏은 사귀는 것이고 精은 天一을 數이다. 무릇 陰陽이 합하여 만 가지 형체가 이루어질 때 먼저 精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항상 몸보다 앞서 생기는 것을 精이라 한다고 하였다. 「本神」에서는 두 精이 서로 맞붙은 것을 神이라 하였고 여기서는 두 神이 서로 맞붙어 합하여 형체를 이루는데 항상 몸보다 앞서 생기는 것을 精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대개 저기서는 精으로 말미암아 神으로 化하는 것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神으로 말미암아 精으로 化하는 것을 말하여서 두 가지가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 바로 陰陽이 서로 맞붙은 것을 밝힌 것이니 곧 이것이 합일의 도이다.

兩神, 陰陽也. 搏, 交也, 精, 天一之數也. 凡陰陽合而萬形成, 無不先從精始, 故曰常先身生, 是謂精. 按本神篇曰兩精相搏謂之神, 而此曰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蓋彼言由精以化神, 此言由神以化精, 二者若乎不同, 正以明陰陽之互用者, 卽其合一之道也.<sup>33)</sup>

즉, 「本神」의 내용은 精으로 인하여 神이 형성되는 과정이며 「決氣」의 내용은 神으로 인하여 精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서로 반대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상반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陰陽이 互用하는 것을 밝힌 것으로 바로 이것이 合一의 도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여기서 兩神을 「本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미 精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과적으로 형성되는 神이라고 한다면 그 神은 새로 탄생하는 개체 자신의 神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陰陽 두 가지로 분화되어 나타난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物生謂之化, 物極謂之變, 陰陽不測, 謂之神, 神用無方, 謂之聖.(만물이 태어나는 것을 화라 하고 죽는 것을 변이라 한다. 음양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을 신이라 하고 신을 써서 한계가 없는 것을 성이라 한다.)”<sup>34)</sup>라 하여 神은 일반적으로 현상 세계의 陰陽

현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兩神을 만약 부모의 神이라고 본다면 부모의 神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陽神[父의 神]과 陰神[母의 神]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 생명의 탄생 과정에서 육체가 완성되기 이전에 반드시 精이 있어야 하는데 이 精은 바로 父母의 神의 陰陽變化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sup>35)</sup> 이에 비하여 앞에서 말한 “兩精相搏謂之神”의 神은 精이 충실해진 이후의 2차 과정에서 나타난다. 精은 생명의 기본 바탕으로서 일반적으로 水穀의 氣가 精微해져서 精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精을 품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부모로부터 精을 품부 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神의 陰陽變化가 있어야 제대로 精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3. 陰陽變化와 精神作用

精의 陰陽變化를 통하여 神이 精에 뿌리를 내리려 작용을 하게 되고, 반대로 精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神의 陰陽變化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陰陽變化는 精과 神의 相互作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왜 精과 神은 이러한 陰陽變化를 통하여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가. 陰陽變化의 양태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分化와 統合을 반복하고 있다. 즉 太極에서 陰陽이 분화하여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의 모순을 극복하고 統合을 이루어 다시 太極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모순의 극복과 통합 과정에서 氣가 수렴되면서 精이 만들어지고 神이 활동을 하게 된다. ‘相搏’이란 표현이 바로 모순을 극복하고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陰과 陽이 만나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搏’이란

35) 章楠은 『靈素節注類編·稟賦源流總論·精氣津液血脈由陰陽所化』(章楠, 靈素節注類編,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2.)에서 “男女媾精, 萬物生化, 當媾精時, 兩神相合而成形. 常先其身而生者, 名精, 卽所謂先天之氣, 是陰陽混合而成太極之象也.(남녀가 정을 교합하여 만물이 화생하는데, 정을 교합할 때에 두 신이 서로 합하여 형체를 이룬다. 항상 몸보다 앞서 생하는 것을 정이라 부르니 곧 이른바 선천의 기이고 음양이 섞여 합하여 태극의 상을 이루는 것이다.)”라 하여 男女가 합방할 때에 동시에 男女의 兩神이 상합하여 형체를 만든다고 보았다.

33)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78.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3.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붙어서 깊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며, 이 과정이 서로 다른 陰陽이 합치하는 것이므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고 어느 정도 갈등을 극복하면서 어렵게 이루어진다. 統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초에 分化의 단계가 필요하므로 처음에 陰과 陽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兩精相搏謂之神”은 精이 神을 자신에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먼저 陰과 陽으로 分化한 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後天的으로 神이 창조적인 활동을 행할 때 항상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용이다. 이에 비하여 “兩神相搏... 是謂精.”은 부모의 神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가 合一하여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의식과 희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兩精의 작용에 비하여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精과 神 이외에 氣와 血도 陰陽變化를 하고 있다. 즉, 發散과 收斂을 통하여 새로운 生命력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氣血은, 精과 神의 경우처럼 陰陽이 서로 ‘相搏’하여 최종적으로 統一 또는 合一을 지향하지는 않는다.<sup>36)</sup> 精과 神은 生命의 탄생과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精과 神이 ‘相搏’하는 이유는 精과 神이 모두 궁극적으로 太極을 指向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太極에서 陰陽으로 分化되는 과정이 모순이 발생하여 生命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라면, 陰陽에서 다시 太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모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生命력을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精과 神은 주로 後者에 관련되어 있다.

陰陽의 分化가 現狀 세계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氣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太極은 先天的 形而上學的 세계를 의미한다. 無에서 有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여러 創造活動은, 인과법칙에 지배를 받는 음양변화보다는 無極 또는 太極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創造 능력이 많은 神의 활동이나, 또는 가장 큰 창조활동의 하나인 자식을 낳는 등의 精의 작용은 모두 太極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太極을 지향하는 神의 작용에 대하여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物生謂之化, 物極謂之變, 陰陽不測, 謂之神, 神用無方, 謂之聖.(만물이 태어나는 것을 화라 하고 죽는 것을 변이라 한다. 음양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을 신이라 하고 신을 써서 한계가 없는 것을 성이라 한다.)”<sup>37)</sup>이라 하여 이미 분화된 陰陽의 잣대로는 파악할 수 없는 神妙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素問·五常政大論』에서 “根于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于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신기라 부르니 신이 떠나가면 기틀이 멈추고, 밖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기립이라 부르니 기가 멈추면 변화가 끊어진다.)”<sup>38)</sup>이라 하였다. 太極을 지향하는 精과 神이 발달한 경우 외부로부터 生命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生命력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根于中’이라 표현하였고, 이러한 생명체를 ‘神機之物’이라 하였다. 반면에 現狀 세계의 氣의 陰陽變化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氣의 보충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根于外’라 표현하였고, 이러한 생명체를 ‘氣立之物’이라 하였다.

神機之物과 氣立之物이 神과 氣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중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개체의 종류를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 중에서 神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분화 발달된 현상세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氣와 血의 음양운동이 주로 두드러지게 되며, 창조적인 활동의 측면에서는 太極을 지향하는 精과 神 각각의 통합과정이 중요하게 된다. 결국 神機之物과 氣立之物의 대립적인 개념은 精神과 氣血의 특성을 대비하여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6) 氣와 血은 현재 우리 몸을 영위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생성되고 없어지는 것이므로 統一, 合一에 도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분화되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3.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57.



### Ⅲ. 結 論

精과 神은 現代醫學의으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인체의 구성요소들이다. 『黃帝內經』을 살펴보면 精과 神은 生命을 탄생시키고 生命力을 창조하며 生命을 유지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精의 축적 이후에 神이 머물러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精과 神은 生成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관계는 항상 陰陽變化를 매개로 하고 있다. 이때의 陰陽變化는 相搏 과정을 통하여 無極 또는 太極으로의 복귀 즉, 合一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외부로부터 氣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無에서 有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에 精과 神이 주로 관여하고 있는데, 神은 창조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창조활동을 일으키고, 精은 새로운 生命의 탄생에 관여함으로써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다. 精과 神의 창조력은 陰陽의 일반적인 상호 관계와 유사하게 서로 상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精과 神의 이러한 陰陽變化의 특징은 앞에서 分化보다는 궁극적으로 太極 또는 無極으로의 統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精과 神의 창조 활동과 生命 유지가 현상 세계의 因果的인 變化보다는 形而上學的인 先天의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1. 金達鎬. 補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p.12, 13, 23, 50, 298.
2.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p.49-51.
3.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0, 56, 61, 78, 268, 314, pp.244-245, p.376.
4. 張登本, 孫理軍, 李翠娟. 精氣學說在《黃帝內經》理論建構中的作用及其意義. 中醫學刊. 2006. 24(5). p.786.
5. 章楠. 靈素節注類編.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2.
6.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7.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 16, 49, 86, 92, 233, 257.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1, 68, 168.